

소·부·장에 1천억 투자 '애국펀드 II' 출시

〈소재·부품·장비〉

금투협 "기술·생산 증설자금 절실
새로운 펀드상품 업계와 협의중"
상장·비상장 중기 모두에 투자



14일 여의도 금투센터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인모 금투협 전무가 펀드 출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업계와 손을 잡고 '제2의 애국펀드'를 내놓는다. 내달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사모 재간접 펀드가 탄생할 전망이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14일 "우리 기업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생산능력 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융투자업계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역량을 국가 경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펀드 상품을 업계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총 1000억원 규모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방식으로 조성된다. 상장사 뿐만 아니라 대출이 쉽지 않은 역량 있는 비상장사 중소기업에도 원활하게 투자하기 위함이다.

펀드 만기는 3년이며 정해진 수량만

큼 청약에 받고 클로징(모집 마감)해 폐쇄형으로 설정된다.

지난 10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하는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소액으로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에게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7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대 300억원은 한국성장금융에서 부담한다. 펀드의 투자 안정성을 위해 사모펀드는 선순위 투자

자, 한국성장금융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태수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은 "성장금융이 하락 리스크를 부담한다"면서 "전체 30% 수준의 손실은 우리가 먼저 받아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를 설정 90일 이내에 거러소에 상장해 환금성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신동준 금투협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은 "소재·장비·부품 기업이 대체로 작고 왜소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크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성장금융에서 커버해준다"면서 "폐쇄형이라도 거러소에 상장함으로써 환금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질 펀드는 지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이 내놓은 공모펀드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의 후속타 격이다. 해당 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수탁고 873억원을 올리며 순항 중이다. 출시 당시 금투협은 "다른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면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필승코리아 펀드'와 차이에 대해 신동준 금투협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은 "사모 재간접 구조여서 투자금이 사모 펀드를 통해 해당 회사 주식 등에 직접 들어간다"며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의 차원에서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펀드 운용에는 성장금융뿐만 아니라 벤처 조합도 참여할 계획이다. 성인모 금투협 전무는 "공모 운용사의 경험, 사모 운용사의 전문성, 벤처 캐피탈의 비상장기업 소싱(sourcing) 능력 등이 조화돼 국민 재산 증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투협이 제안한 공모펀드 신상품은 금융투자업계의 준비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 출시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는 성장금융 주도로 12월경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하나금융투자 국내주식CFD 서비스 오픈

하나금융투자는 국내주식CFD(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에 의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의미한다.

CFD를 통해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낮은 증거금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주가가 하락 구간에서도 매도의 포지션 구축을 통해 헤지를 할 수 있다. 별도 청산을 하지 않아도 낮은 금리로 장기간 포지션 보유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시장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어 주식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엄지 기자

비상장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전용플랫폼 나온다

삼성증권·딥서치·답나무, 협력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출시



답나무·삼성증권·딥서치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태화 수습기자

전용 플랫폼이 선보이면서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한 거래 위험성을 덜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과 딥서치, 답나무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장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며 비상장 증권정보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출시를 위해 3사가 협력했다. 답나무는 플랫폼 기획·개발과 함께 기업 정보 발굴을 신선했다. 삼성증권은 실물매출을 확인하고 안전거래를 지원하며, 딥서치는 최근 30

년간의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담당했다. 투자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허위 매출 거래에 대한 위험부담을 덜고, 유망한 비상장 기업 주식을 확보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

이성현 답나무 핀테크사업실장은 "비상장 주식시장에 믿음직한 채널이

없었다"며 이번 플랫폼을 출시하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거래가 진행되고 대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유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용수 삼성증권 디지털채널본부장

은 "최근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비상장 주식 시장은 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운 딥서치 대표 역시 "상장 기업들의 경우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많지만 비상장 기업은 그렇지 않다"면서 "비상장 기업뿐 아니라 경쟁사들까지 볼 수 있다. 비상장 기업들을 투자자들이 더욱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플랫폼 서비스는 이달 말 정식 출범한다. 3사는 내년 상반기엔 블록체인의 도입해 모든 거래 과정을 자동화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최대 4000여 개에 달하는 통일증권 발행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



KB증권 8주간 실전투자대회 개최

KB증권은 14일 '제6회 KB증권 투자왕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 참가 신청 고객이 5000명에 육박할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6회 KB증권 투자왕 실전투자대회'는 이날부터 12월 6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KB증권 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11월 22일까지 KB증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앱(MTS) 및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순위를 가리는 것이 특징으로 '통합리그(1억·3천·1백리그)'와 '대학(원)생리그(1백리그)'로 나누어 실시한다. /손엄지 기자

외국인, 국내 주식시장 두달째 매도세

지난달 상장주식 9150억 순매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두 달째 매도세를 이어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외국인 순매도액은 9150억원에 순매도해 8월 이후 순매도세를 유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7400억원, 17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원)과 아시아(-8000억원)에서 순매도한 반면 중동(3000억원)과 미국(2000억원)에서 순매수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1000억원)과 싱가포르(-1조1000억원), 룩셈부르크(-3000억원) 등이 순매도했다. 캐나다(2000억원), 미국(2000억원), 호주

(2000억원) 등은 매수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9월 말 기준 555조8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8조10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6조6850억원의 영향으로 총 1조4160억원 순투자했다. 지난 8월 이후 순투자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4000억원), 중동(1000억원), 미주(2000억원)에서 순투자한 반면 아시아(-2000억원)에서는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국채(1조4000억원), 통안채(1000억원), 잔존만기별로는 잔존 만기 1~5년미만(4조5000억원), 5년이상(1조2000억원)에 주로 투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이지스자산운용 '대학로CGV 부동산 공모펀드'

이지스자산운용은 '대학로CGV' 부동산공모펀드(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299호)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펀드에 투자하는 대학로CGV 영화관 건물은 서울 주요상권 중 하나인 혜화역과 성균관대를 잇는 대학로 핵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임대율 100%를 달성하고 있다.

대학로CGV는 8개관 973석의 규모의 영화관으로 2008년 CJ CGV가 책임임대차 계약 체결 후 11년간 성업 중에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우량 입지의 장점과 인근에 풍부한 유동인구 및 배후수요를 보유하여 추후 안정적인 매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로CGV 전경. /이지스자산운용

고 밝혔다. 펀드 설정기간 대비 잔여임대차기간이 2배 이상 길어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총 상금 1.7억 '투자대회'

키움증권은 '2019 키움 영웅전 실전투자대회'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상금 1억6735만원 규모인 이번 대회는 주식리그와 선물옵션리그로 나눠서 진행된다. 주식리그는 각각 1억원, 3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클럽으로 구성됐다.

대회기간 동안 주식 거래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회 기간 주식거래 금액 1, 2, 3위를 차지한 참가자들은 순금항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일정 거래금액을 충족한 고객들 중 30명을 추첨해 6주간 180명에게 인당 현금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송태화 수습기자